

2014년 2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

뱃속 아기의 몸
おなかの中の子供の体

산부인과 문을 걸어 나오는 순간
産婦人科のドアを歩いて出る瞬間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음식을 골라
これからは本当にいい食事を選んで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食べ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考えが、自然に浮かんだ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먹는 음식이
その時はじめてわかった。私が食べる食事が

아기의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구나.
子供の血と肉と骨を作るんだなと

아기의 몸을 만드는 세포는 음식으로부터
子供の体を作る細胞は食事から

왔구나. 그리고 딸 둘을 모두 젖을 먹여
くるんだなと。そして、娘二人に乳を与えて

키우는 동안 확신하게 되었다.
育てる間確信するようになった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이다!
私は私が食べた食事だ

- 김선미의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중에서 -
- キム・ソンの《ソローの欲張らない人生》より -

* 내가 먹는 음식이
* 私が食べる食事が

나의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私の体を作ります。そして

뱃속에 든 내 아이의 몸을 만듭니다.
おなかの中に入った子供の体を作ります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고 '좋은 음식'을
むやみに食べてはならないし'いい食事'を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으로 먹는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す。口で食べる

음식도 좋아야 하지만, 마음의 음식도
食事もよくなければならないが、体の食事も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몸과
良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てこそ、子供の体と

마음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心をよく作ることができます。

절로自然に

모두 (冒頭)

[명사] 冒頭; 書き出し; 言い出し; 話や文章の...

젖

[명사]

乳; 乳汁; おっぱい[유아어].

乳房; おっぱい[유아어].

植物の幹や葉から出る液汁. (=젖 먹은 힘까)...

먹이다

[타동사]

['먹다' の使役]

(음식을) 食べさせる; 食わす; 飲ます.

(사육하다) 飼う; 養う.

탐하다 (貪一)

[타동사] 貪る; 欲張る; 飽きることなく欲しがる; がつがつする.

2014년 2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

법률가의 두 가지 수칙
法律家の2つの心得

침묵.
沈黙

침묵할 때 더 많은 지식이 쌓인다.
沈黙するとき、さらに多くの知識が積まれる

모든 법률가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全ての法律家は、次の2つの事実を知っている

첫째,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지 마라.
一つ目、答えを知らない質問を投げかけてはいけない

둘째,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어야 하는
二つ目、椅子に座って、口をつぐまなければならない

순간을 알아라.
瞬間を知りなさい

- 캐머런 건의 《프랭클린처럼 살아보기》 중에서 -
- キャメロン・ガンの〈フランクリンのように生きてみる〉より -

* 법률가에게만 적용되는
* 法律家だけに使う

수칙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心得では、おそらくないでしょう

선생님, 사업가, 정치인, 거의 모든 사람에게
先生、企業家、政治家、ほとんどすべての人に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답을 알기 위해서는
必要な徳目であるでしょう。答えを知るために

공부해야 합니다. 입을 다무는 침묵의
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口をつぐむ沈黙の

시간을 위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時間のために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기 내면의 거울을 갈고 닦는
自分の内面の鏡を磨いて

'내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内的な勉強'が必要です

수칙 (守則)
[명사] 守るべきことを定めた規則; 心得.
다물다
[타동사] つぐむ; 閉じる; 締める.

2014년 2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

성스런 신전, 그 문지기
神聖な神殿、その門衛

지금은 철따라
今は、季節によって

제철 채소로 계절김치를 담그고,
食べごろの野菜で、季節のキムチを漬けて

질 좋은 메주를 사서 장을 담가 간장과 된장을
質の良いみそ玉麴を買って、仕込んで、醤油と味噌を

스스로 자급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自給を始めた。健康な肉体のために

밥을 짓는 일을 수행이나 명상처럼 성스러운 일로
ご飯を炊くことを、修行や瞑想のように神聖なこととして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내 몸이라는 성스런
受け入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私の体という神聖な

신전을 세우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神殿を建てる芸術的になりたいのだ

- 김선미의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중에서 -
- キム・ソンミの〈ソローの欲張らない人生〉より -

* 내 몸이 곧
* 私の体がまさに

가장 성스런 신전입니다.
一番神聖な神殿です

자기 신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自分自身にごみを捨てる人はいません

맛있는 제철 음식, 잘 만든 된장과 간장, 사랑과
おいしい季節の食事、よくできた味噌と醤油、愛と

정성을 담아 밥 짓는 것, 이것이 자기 신전을
真心つまったご飯を炊くこと、それが自分自身を

잘 지키는 일입니다. 성스런 신전,
守るのです。神聖な神殿

그 문지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その門衛はまさにあなたです

성스럽다 (聖—)
[형용사] 神聖だ; 神神しい.
신전 (神前)
[명사] 神前.
문지기 (門—)

[명사] 門番; 門衛. (=문직(門直))

제철

[명사] (着物·食べ物などの)適期; 食いごろ; 食べごろ.

채소 (菜蔬)

[명사] 蔬菜; 野菜; 青物.

메주

[명사] みそ玉麴.

しょう油[みそ]を仕込む 발음 재생 (표제어:장)

장을 담그다

스스로

[부사] (자연히·자발적으로) おのずから; ひとりでに; 自ら; 手ずから; 我(...

[명사] (자기 자신) 自分; 自己; 自身.

자급 (自給)

[명사] 自給.

정성 (精誠)

[명사] 精誠; 真心; 丹念; 誠.

2014년 2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 (5, 771조회)

톨스토이는 왜 '여성 심리 대가'가 되었을까?
トルストイは何故'女性心理の大家'になったのか?

아홉 살에 고아가 되어
9歳で孤児になって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는 동안
色々な親戚の家を転々とする間

톨스토이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トルストイはずっと、顔色をうかがうしかなかったが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他人の家で暮らすことになれば、いずれにしても'あの人たち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私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と敏感に反応す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그런 심리가 체질화된 탓도 있을 겁니다.
そのような心理が、性質化されたせいもあるのでしょう。

그 덕분에 톨스토이는 어린 나이에
そのおかげで、トルストイは幼い年齢で

대단한 관찰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偉大な観察力の所有者になりました

특히 여성 심리의 대가입니다.
特に女性の心理の大家です

- 이현우의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중에서 -
- イ・ヒョンウ<ローザのロシア文学講義>より -

* 두살에 어머니를 잃고
* 2歳で母を失い

아홉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9歳で父さえ世の中を去って

너무도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린 톨스토이.
とても幼い歳で、孤児になってしまったトルストイ

친척집을 돌며 이른바 '눈치밥'을 먹고 자랐지만,
新世紀の家を回っていわゆる'顔色ご飯'を食べて育ったが

그러나 기 죽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관찰력을 키워
しかし、氣をくじけず、むしろ内面の観察力を育て

'여성 심리 대가'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女性心理の大家'として評価を受けるに至りました

눈물로 삼킨 눈치밥이 그를 세계적인
涙で飲み込んだ顔色ご飯が、彼を世界的

문호로 키워냈습니다.
文豪に育てました。

고아 (孤兒)

[명사] 孤兒; みなしご.

눈치 (를) 보다

[성구·관용구] 人の氣色をさぐる; 顔色[機嫌]をうかがう.

체질 (體質)

[명사]

体質.

からだの性質.

団体や組織などの性質.

이른바

[부사] いわゆる. (=소위(所謂))

기 죽지 않고 氣きがくじけず

이르다¹

[자동사]

至る.

(목적지·시간에) 到着する; 到達する; 行き着く: ...

(미치다) 達する; わたる; 及ぶ; (사태에) 立ち至る.

삼키다

[타동사]

(목구멍으로) 飲む; 飲み下す; 飲み込む.

(억지로 참다) こらえる; 抑える.

人の物をわがものとする; 横領する; 着服す...

2014년 2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 (3, 989조회)

모두 다 당신 편
すべて、あなたの味方

당신의 재능은
あなたの才能は

사람들 머리 속에 기억되지만,
人々の頭の中に記憶される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あなたの配慮と人間的な余白は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人々の心の中に記憶されます

가슴으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心であなたを記憶する人々は

모두 다 당신 편입니다.
全てあなたの味方です

- 이철환의 《못난이만두 이야기》 중에서 -
- イ・チョルファンの〈出来損ない餃子の話〉より -

* 외롭습니까?
* 寂しいですか?

너무 외로워 마십시오.
あまりに寂しくしないでください。

앞서거나 뒤서거나 가는 인생길,
前へ行ったり、後ずさりする人生の道

언제 어디선가 평생 가슴으로 기억되는 길동무를
いつか、どこかで、一生、心に記憶される同伴者に

만나는 행운의 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会う幸運の時間が必ずあるでしょう

그럼요. 당신이 먼저 가슴을 열면
そうです。あなたがまず胸を開けば

그 뒤에 만나는 길동무마다
その後会う同伴者は

모두가 당신 편입니다.
みなあなたの味方です

(2009년 1월13일자 앙코르메일)
(2009年1月13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길동무
[명사] 道連れ; 連れ合い; 同行者. (=길벗)

2014년 2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5, 308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인호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イノ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相手を理解することは

자기의 말을 정말로 잘 들어줄,
自分の言葉を本当によく聞いてくれる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だから、もう少し正確に言えば

자기의 말을 정말로 잘 이해해 줄 누군가가
自分の言葉を本当によく理解してくれる誰かが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必要だということは、いくら強調してもしすぎることはありません

이를테면 우리 사람에겐 자신을 사랑해줄
要するに、我々人間には、自分を愛してくれる

그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誰かが、絶対に必要だということでしょう

- 이정하의 《우리 사는 동안에》 중에서 -
- イ・ジョンファの〈我々が生きている間で〉より -

*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 誰かを理解することは

상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相手を夢中に考え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상대의 일상과 처해진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相手の日常と置かれた状況を頭の中で描いてみて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상대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目で見て、耳で相手の言葉を聞いて、心で感じて

머리로 깨달으며 상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頭で気づいて、相手になっていくのです

우리는 흔히 “너를 이해해” 라고 말합니다.
我々は、よく“お前をわかってる”といいます

우린 얼마나 이해하며 그렇게 말할까요.
我々はどれだけ理解して、そういうのでしょうか

진정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本当に誰かを理解することは

사랑하는 것입니다.
愛することです

이를테면

[부사]たとえて言えば; 言わば; たとえば.

골똘히

[부사]夢中に; 一生懸命に; 没頭して; 熱心(...

흔히

[부사]多く; 俗に; よく; ありふれて.